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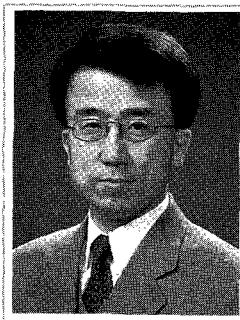


## 국제 교류 심화의 중요성 실감

-완벽한 준비와 시스템 필요-

장 호 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협력실장



###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 1. 세미나 개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의 제24회 대회가 10월 7일부터 8일 까지 2일간 일본 도쿄에 소재한 아주르 다케시바(Azur Takeshiba) 호텔에서 한·일 양국 관계자 1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방국진 사무총장을 대표단장으

로 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기술(주) · 한전기공(주) · 한국원자력연구소 · 원자력병원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두산중공업(주) · 현대건설(주) ·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 (주)카이텍 · 삼창기업(주) · 고등기술연구원 등 16개 기관에서 28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 시장의 자유화와 원자력 발전의 역할」, 「사용후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국민 이해와 문제점」, 「원자력발전소 건설 · 보수의 기술 향상」, 「RI 및 방사선 이용」,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검토」, 「최근의 원전 사고」 등 기술 세션에서 한국 측에서 총11편, 일본측에서 총12편 등 23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세미나 일정은 10월 7일부터 8일 까지 2일간 세미나를 개최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로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혼카이도의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 및 동경전력관 등을 방문하는 산업 시찰로 이루어졌다.

#### 2. 세미나 일정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10월 6일 일요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나뉘어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여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일본 나리타 공항 제1청사 도착 로비에 집결하여 일본원산 측에서 준비한 셔틀 버스로 세미나 장소이며 숙소인 다케시바 호텔로 이동하였다.

다케시바 호텔은 일본 미나토구 해안가의 전망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호텔 이름 앞에 붙은 아주르(Azur)는 푸른색을 나타내는 라틴어로서 이탈리아 축구팀을 아주르 군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유니폼이 푸른색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대표단 일원들의 말에 필자는 우리 대

표단들의 예리한 지적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첫 날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 대표단들은 저녁에 호텔 로비에 모여 한국원산 주최로 마련된 세미나 준비 회의를 겸한 만찬회를 갖기 위하여 호텔 인근의 한국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만찬회에서는 각자 소개와 세미나 일정 및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역할 분담, 산업 시찰 일정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원산측의 설명과 질의·답변 등이 있었다.

세미나 첫날인 10월 7일 오전 9시에 개시된 개회 세션은 세션 의장인 오야마 아키라 일본원산 한·일 원자력협력위원회 위원장(동경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개회사는 일본측에서는 일본 대표 단장인 사카모토 히로사토 훗카이 도전력(주) 부사장이, 한국측에서는 대표단장인 방국진 한국원산 사무총장이 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2002년 한·일 국민 교류년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이 있었다. 연사는 1995년에 한·일 교류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동아일보사와 일본의 아사히신문사 공동 주최로 개최된 '한·일 교류 논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여류 소설가인 아스나 미즈호씨로, 「한·일 교류의 신기원」이란 주제 하에 강연을 하였다.

아스나씨는 1997년 동경대학 경

제학부를 졸업한 젊은 재원으로서 다방면의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일간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스나씨는 강연에서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선입견 등을 설문 결과를 통하여 제시 및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털어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파트너이자 선의 경쟁자 관계로서 극동 지역에 만 국한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줄 것을 강조하였다.

기술 논문 위주의 세미나에 있어서 한·일 참가자를 위하여 배려한 이러한 특별 강연은 참으로 신선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한·일 교류년 기념 강연 후에는 한·일 양국 원자력 인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세미나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수력원자력(주) 권오철 전무의 「한국원자력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이라는 제목의 강연 원고를 한국측 세미나 준비위원장인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이 대독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데쓰야 앤도 원자력위원이 「일본의 원자력정책」이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개회 세션 종료 후에는 기술 세션

이 진행되었으며, 기술 세션과는 별도로 한국측의 RI 분야 관계자들을 위한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다카사키 RI 센터의 방문을 위한 산업 시찰이 일본원산측 배려로 진행되었다.

이 시찰은 RI 전문가인 일본원산의 마치 수에오 상무이사가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마치씨는 다카사키 RI센터 출신으로서 IAEA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한국과의 RI 분야의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발전 분야인 RI 분야를 특별히 Round Table 세션으로 구성하여 다른 기술 세션과 같은 시간대에 병행하여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세션에 한국에서 원자력 연구소의 최선주 박사와 원자력병원의 김은희 박사 등 여성 전문가 2명이 세션 의장·발표자 및 토론자로서 참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었다.

대회 마지막 세션인 폐회 세션은 이번 세미나 개최 결과에 대한 의견과 차기 세미나 준비를 위한 제안 및 건의 등이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카모토 훗카이도전력(주) 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폐회세션에는 한국측에서 대표단장인 방국진 한국원산 사무총장과 세미나 준비위원장인 송명재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그리고 기



술 세션의 의장을 맡았던 홍승렬 한전 전력연구원 원전설비지원그룹장이 참가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미즈마치 와타루 원자력발전기술기구 안전정보연구센터소장, 다쿠마 마사오 일본원산 전무이사 등 양측에서 모두 6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하여 차기 세미나의 구성을 위한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양측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한국 또는 일본에서 서로 만나 함께 세미나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비원전 분야인 RI 분야도 내년 세미나에서도 기술 세션에 계속 포함시켜 의학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세미나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양국 공통 과제를 함께 연구 및 수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랬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일 양측 참가자들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석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 3. 산업 시찰

세미나 다음날인 10월 9일부터는 산업 시찰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한 대표단들은 비행기로 미사와 공항에 도착하여 롯카쇼무라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동하였다.

먼저 롯카쇼 원연 PR 센터를 방



제2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문하여 시설에 관한 현황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 후 대표단들은 우라늄 농축 공장,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공사중인 재처리 공장 현장 등을 둘러보았다.

롯카쇼무라 견학을 끝낸 후 대표단들은 아오모리 공항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비행기로 훗카이도 치토세 국제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훗카이도에 도착 후 호텔로 이동한 후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진 대표단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출출한 배를 채우러 호텔 부근의 라면집들을 찾기도 하였다.

이튿날 10월 10일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모인 대표단들은 준비된 셔틀 버스로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로 이동하였다. 회의실에서 원전 관계자들과 시설에 대한 질문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망 대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나서 2개 조로 나뉘어 1호기와 2호기의 견학을 실시하였다.

도마리 발전소는 한·일 세미나의 일본 대표단장인 사카모토 히로사토씨가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훗카이도전력(주)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발전소 중 유일한 원자력발전소 (PWR)로서 사카모토 부사장이 한국 대표단의 산업 시찰지로 특별히 준비해준 곳이라고 한다. 훗카이도전력(주)은 자체 전력 생산의 26%를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산해내고 있다.

도마리 발전소는 모두 2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며 1호기는 1989년 6월에, 2호기는 1991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으며, 모두 579MWe 용량급으로서 현재는 912MWe급 용량의 3호기가 2009년 12월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도마리 발전소 시찰 후에는 발전소 부근 요이치(Yoichi)시에 있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유명한 니카(Nikka) 위스키 공장을 견학하여 무료로 여러 위스키들을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11일에는 오전 일찍 비행기로 홋카이도에서 동경으로 이동하여 하네다 공항에서 점심을 함께 한 후 시부야에 소재한 동경 전력관을 방문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에 대한 홍보 활동 등에 대한 브리핑 설명을 들은 후 상냥하고 친절한 여성 안내원들의 도움으로 관내 여러 전시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한국 대표단들에게 설명을 해준 오가와 히로지 안내부장은 노년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군인과 같은 매우 절도있는 행동과 박력있는 목소리로 대표단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부야는 서울의 강남이나 신촌과 같이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는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곳인데, 동경 전력이 이러한 변화한 곳에 위치하여 많은 남녀노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력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 4. 2003년 세미나를 기약하며

산업 시찰은 매년 그래왔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여러 시설의 방문을 위하여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빠빠한 일정 속에 비행기와 버스에서 보내는 불편하고 지루한 시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대로 따라주신 한국 대표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싶다.

정말 이번 산업 시찰을 통하여 평소 이름만 들었던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친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필자에게는 커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본 세미나는 대만 원자력 전문가 초청 및 양국 여성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 등 프로그램에 있어서 당초 양국간에 협의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않게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세미나 기간 중 일본측과 본 세미나 구성 및 진행에 있어서 상호 준비가 미비했거나 오해되는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차기 세미나는 예전 보다 더 강화된 양국간의 협력으로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일 세미나는 내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으로 본 세미나의 한국측 준비 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송명재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과 세션 의장 및 논문 발표자,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준 한국측 참가자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한국 대표단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은 한국전력공사 동경사무소의 김훈배 과장과 본 세미나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던 일본원자력산업회의의 고지마 료코씨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제13차 PBNC 대회

#### 1. 대회 개요

태평양 연안 국 원 자 력 회 의(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 PBNC)는 태평양원자력협의회(Pacific Nuclear Council ; PNC) 주관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회의로서 2000년 10월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이후 올해 10월 21일~25일까지 중국 광동성 심천에서 개최되었다.

총 20여개국에서 500명이 넘게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기술(주)·한전기공(주)·한전원자력연료(주)·두산중공업(주)·한국정수공업(주) 등



7개 기관에서 41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의 발표 논문 수는 총 24편으로서 주최국인 중국(123편), 일본(36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가 되었다.

PBNC 대회 기간중 개최된 전시회에는 한국·일본·중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World Nuclear Transport Institute·OECD/NEA 등 7개국 2개 국제 기관에서 참가하여 총 27개 부스가 전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두산중공업(주)가 유일하게 참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6개 기관이 참여하여 중국 원자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 2. PNC 회의, PBNC 대회

본 PBNC 대회 개최에 앞서 10월 21일에는 하루종일 PBNC 대회 주관 기구인 PNC 회의가 개최되었다.

PNC는 태평양 지역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85년에 창설된 국제 기구로서 현재 회원국은 한국(회원 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을 비롯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러시아·호주·일본·중국·대만·인도네시아 등 11국의 13개 기관(원자력협회 및 학회)이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PNC 회의는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되고 있으며 PBNC 대회가 개최될 때에는 PBNC 대회 기간 중 개최되고 있다.

이번 PNC 회의에서는 연구분과 위원회의 활동, 차기 PNC 회장단 선거 결과, PNC 상설사무국 설치, PBNC 대회 운영 현황, PNC 현장 개정, PNC의 국제 기구에서의 NGO 자격 획득, 북한의 PNC 영입 초청 등 다양한 안건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본 PNC 회의에는 방국진 원산 사무총장(PNC 회원 기관 대표), 이창건 원자력위원(PBNC 국제기술 위원회 위원), 이병휘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PBNC 국제운영위원회 위원)와 필자가 참석하였다.

PBNC 대회는 대회 첫날에 개최된 개회 세션(Plenary Session)에서는 세션 의장인 중국원자력학회 장이며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회장인 Wang Naiyan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개회사는 대회장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사장인 리딩판씨가 하였고 축사는 심천 시장이 하였다.

특히 개회식에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PBNC 개최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개회식이 끝난 후 개최된 Plenary Session에서는 세계 주요국 인사들이 기조 강연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최양우 사장이 초청되어 「에너지, 원자력

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최사장은 강연에서 한국의 원자력 개발 현황에 대해 전력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추진 계획에 의해 2001년 4월 원자력 사업 기관으로 발족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딛고 건실한 토대를 구축해온 결과, 출범 첫 해 원전 운영 실적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이룩하여 현재 회사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통하여 중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순조로운 원전 건설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고유 기술로 개발된 신형경수로 APR1400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3. 심천(深圳)

심천은 중국 남부 광동성의 중남부 연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중국 개방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구역의 하나로 1979년에 경제 특구로 지정된 도시이다.

중국 유수의 관광 도시로 꼽히지는 않지만 외국 자본이 투입되어 있어 사업 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한다. 홍콩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홍콩을 경유하여 입국하였다.

란타우섬 북쪽에 위치한 홍콩 국제 공항 도착 로비에는 PBNC 참가자들을 위한 셔틀 버스 안내 데스크

가 설치되어 친절하게 버스 터미널 까지 안내하여 주었다.

심천 대회장까지의 1인당 편도 요금은 PBNC 웹사이트에 미화 약 22달러로 안내되었으나 안내 테스크에서는 25달러를 요구하여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안내된 대로 22달러를 받았다.

중국의 화폐는 미화 1달러가 약 8.21 RMB(런민폐 ; 인민폐(人民幣)) 정도로서 심천에서는 미화나 홍콩달러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오로지 런민폐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경제 특구라는 이름과는 달리 시내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중국어로만 의사 소통이 가능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다.

대회 장소인 우조우 게스트 하우스 호텔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 중국어로 섞여 이야기 해야 하는 등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심천에 가기 위해 경유지로 도착한 홍콩의 날씨는 출발하기 전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을 날씨로서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로서 한국의 날씨와 비슷할 걸로 알고 갔으나 섭씨 27도를 웃돌아 매우 더웠으며 가을 옷차림으로 준비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소 더위에 곤혹스러워하였다.

홍콩 국제 공항(첵랍콕)에서 심천



제13차 PBNC 대회

PBNC 대회장까지는 약 2시간 15분이 소요되었지만 중간에 홍콩과 중국의 국경에서 입국 및 출국 신고를 위하여 버스에서 짐을 갖고 내려서 수속을 밟느라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다.

심천은 경제 특구답게 높은 빌딩과 거리에 이곳저곳으로 넓게 자리 잡은 녹지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현대적인 도시였으나 고층 빌딩의 대부분은 주상 복합형 아파트였고 아파트와 상업 빌딩 같은 고층 건물들이 여러 곳에서 건축중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경제 특구라는 이름과는 결맞지 않게 밤거리 는 너무나 조용하였고 음식점이나 술집들도 그리 눈에 많이 띄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는 이를 시간임에

도 거리 녹지 공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자주 보던 중국 전통 기공 체조(타이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 유지에 관심이 매우 많음을 알게되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대회 첫 날 저녁에 한국원산 주최로 호텔 주변 중국 음식점에 함께 모여 만찬을 같이 하면서 각자 소개와 대회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역할 분담과 향후 참가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친분을 쌓았고 당일 낮에는 대회 장소 앞에서 합동 기념 사진도 촬영하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예전에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면 한국에서 어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각기 행동하여 정보 수집을 위한 역할 분담이 매우 아쉬웠다고 하면서 이러한 한



국 대표단 모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는 국제 회의 참가에 앞서 참가 준비 회의 실시 등 원산의 많은 역할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아쉬운 점은 한국측 참가자 중 일부가 중국 주최 기관에서 안내한 곳 이외의 호텔에 묵었던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이 모일 수 없었던 점이다. 앞으로는 현지에서의 연락을 위하여 한국원산에 호텔과 전화 번호 등을 사전에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4. PBNC 대회 운영 내용

이번 중국에서 개최된 PBNC 대회의 운영 내용을 보면 2000년 10 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PBNC 대회의 진행 방법과 추진 내용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았다.

대회 전날 개최된 환영 리셉션 시간에 맞춰서 전시회 개막식을 한다든가, 또한 개회식 직전에 국내에 초청 기조 강연자들이 대회장과 함께 귀빈실에 모여 환담 후 대회장으로 입장한다든가, 매일 아침 논문 발표자와 세션 의장과의 사전 미팅을 위한 조찬회 구성 등이 그러한 예이다.

주최 기관인 중국원자력학회에서는 대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우리 원산측에 많은 문의를 하여왔으며, 특히 이번 PBNC 대회의 국제 운영위원회 위원인 이병희 교수와

국제기술위원회 위원인 이창진 박사가 중국 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 PBNC 대회의 특징은 등록비에 대아만 원자력발전소 산업 시찰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산업 시찰 비용은 등록비와는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한 데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참가자들에게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 보였다.

이번 PBNC 대회 장소는 홀륭하였으나 그 주변에 불거리·먹거리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곳이 없고 사람도 없이 한적하여 회의 종료 후 참가자(동반자를 포함한)들이 호텔 내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자동차로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은 국제 이벤트로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자화자찬 같지만 200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12차 PBNC 대회시에는 개최 장소가 서울 강남의 중심지인 COEX여서 많은 참가자들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도 밤늦게까지 동반자들과 함께 쇼핑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가 있어 이번 PBNC 대회와 비교가 되었다.

#### 5. 결 어

한 나라에서의 국제 회의의 개최(전시회 포함)는 그 회의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 나라의 위상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지만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유발 시켜 주로 성수기 시즌에 있어서만 (단기간) 체류하는 일반 관광객들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컨벤션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국제 회의 준비를 자주 해야 하는 필자에게는 이번 PBNC 대회의 경우가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PBNC 대회 주관 기관인 PNC에 있어서도 회원국 들간의 차기 PBNC 대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차기 PBNC 대회(14th PBNC)는 주관 기관인 PNC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4년 3월 21일부터 25 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쉐라톤 와이키키 호텔)에서 PNC 회원 기관인 미국원자력학회(ANS)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15차 PBNC 대회는 2006년 10 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 시드니 (힐튼 호텔)에서 호주원자력협회 (ANA) 주최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